

제3회 효 글쓰기 공모전 · 특별일장 대회

입상작모음집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구립도서관

제3회 후 글쓰기 공모전 · 詩 백일장 대회 이모저모



▲ 후 글쓰기 대회 시상식 (5. 15.)



▲ 詩 백일장 대회 시상식 (10. 8.)

발간사

6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실시한 제3회
후 끝쓰기 공모전과 10월 도서관 개관3주
년기념 정책입장대회에 참가해주신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북구립도서관장

엄우성

경북구립도서관에서는 진정한 효의 의미
를 깨닫기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효의 의미를 깨닫
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운동으로 「효 특성화 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구는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장 많
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효 특성화 사업과 더불어 매년 5월 실
시하고 있는 효 끝쓰기 공모전은 많은 지역구민들의 참여 속에
별 구민적 행사로 거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에는 우리도서관 개관3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구민들의 문화적 관심과 장차의욕을 고취하고자 정책입장 대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길어가는 가을절기 속에서 많은 지역구민들
이 도서관을 아꼈다는 시어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지역구민들과 성공적인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후원분입행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구민들의 좋은 글을 받아 제작, 배포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12

경북구립도서관장 **엄우성**

심사위원 소개

소설가 김지연

- 現, (사)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 現, 은평문인협회장 / 정원대 겸임교수
- 제 10회 한국소설 문학상 수상, 월간 문학상 수상
- 제 3회 남명문학상 수상, 제11회 백문학상 수상

<저서>

- 장편소설 : <산세암> <산울음> <아생의 숲>
<히포크라테스의 연가> <푸석병동> 등 다수
- 중편소설 : <아버지의 향기> <불일여자> 등 다수
- 단편소설 : <산카시내> <산길> <어머니의 꼬리> 등 다수

효 글쓰기 심사평

도서관으로부터 넘어 온 원고는 총 98편이었다.

편편마다 나름대로 부모님께 혹은 조부모님께 효(孝)를 다 해 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내용들이 많았고 글 솜씨 또한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 행사를 주최하는 은평구립도서관의 '효문화 실천으로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문예 창작의 기쁨을 마련한다'는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고무적이었다. 다만 드러나 있는 주제를 어떤 형식으로 구성하여 자신의 마음을 독자들에게 감동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는 아직도 고민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았다.

전체적으로, 아동부 학생들의 많은 관심스러우면서도 진솔하고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과 성인층 일부에서는 인터넷에서 주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따라 적당히 구실한 부분들이 눈에 띄어 안타까운 면도 있었다. 주제에 대한 지식은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지만 그 지식을 그대로 옮겨오면 그것은 문예 창작품이 아니라 지식 나열에다 남의 글 요점에 지나지 않는다.

'효'가 무엇인가를 인터넷이나 사전에서 이해하였다면 그것은 나의 밑바탕 지식으로 잡아두고, 그 위에 자기만의 향기롭고 진솔한 길을 지어(창작해야)한다.

문학작품의 심사기준이 대개 비슷하지만 감동을 주는 작품을 우선순위로 하였다.

이번에 수상한 작품들과 특히 최우수 작품들은 아동·청소년·성인층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우수했다. 금·은·동상 순위에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수상자를 비롯 참여한 모든 분들께 정진 있기를 바란다.

차 례

◆ 효 글쓰기 공모전

일반부

최우수상	윤급숙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p
금상	정영숙	내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p
은상	김동진	엄어와 짜나다	p
동상	박미선	고향의 봄	p
동상	정우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효(孝)는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	p
동상	송영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부모님께	p

청소년부

최우수상	배계수	어린 날의 카대이션	p
금상	노지현	진정한 사람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p
은상	황인수	효를 실천하자	p
동상	김재민	재롭게 달라진 내가 되어...	p
동상	박소현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p
동상	손은경	효 이야기를 읽고 나서...	p

아동부

최우수상	김영희	효 보
금상	정호경	심 부 른
은상	조아영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동상	이영호	엄마가 보낸 선물
동상	박재원	진정한 효도
동상	변희철	고마우신 엄마 이해

차 례

◆ 詩 백일장 대회

일반부

최우수상	김영태	시월의 도서관	p
특별상	김영미	별교의 가을	p
우수상	안이심	가을이 깊어지면	p
장려상	박금자	희 상	p

고등학생부

최우수상	윤 빛	갈아지꽃	p
특별상	임사담	가을	p
우수상	강이람	가을 속의 작은 우리	p
장려상	채경용	가을의 문턱에 서서	p

중학생부

최우수상	곽준우	그 옛날 가을은 그렇게 외롭더이다	p
특별상	서지연	낙엽	p
우수상	이슬기	내일의 계절	p
장려상	서지연	가을, 어느 날	p

어린이부

최우수상	이선주	가을이야기	p
특별상	양혜주	가을	p
우수상	정소희	가을풍경	p
장려상	류근용	가을바람	p

5월

孝 글쓰기 임상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일본부 최우순장

유 글 옥

“할아버지 차례예요, 빨리 두세요” 현관문을 열며 “다녀왔습니다”라는 순간 열어가 댈다는 사실도 무시한 채 작은 딸이 나의 아버지를 향해 빨리 걸기를 두라고 재촉을 한다.

“히, 히, 내가 또 잤다.” 하시기가 무성계 “내가 또 이겼다”라 신나하는 작은 아이, 오늘 하루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지루한 오전을 보내셨을 것이다.

일년에 한 번쯤 다니가리고 온 딸의 짐은 그야말로 절할 없는 강육이라 하신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침이면 모두 집을 나서고 나면 작은 아이가 서다시할 돌아올 때까지는 혼자 계시야 하니 시골에서는 오라는데 없어도 갈 때는 갑다시며 버스를 타고 늘 읍내로 다니시면 분이 얼마나 급급하셨을까? 어머니가 직장생활 하는 나를 위해 일 년의 반을 수리집에 계시실 때도 오셔서 이빨을 넘기시지 못하시면 서울 나들이에 이번에는 여러 날 계셨다. 노인실 청각장애를 갖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어버이후과 진료를 위해 오신 것이다.

어제다 알부 전화라도 드리면 “나는 안 들리요, 나중에 다시 하시오” 딸의 목소리도 못 들으신다. 갑박이는 전화를 보고 땀으셨는지, 아니면 간신히 전화벨 소리만 들으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전화를 받으셔서선 무조건 나는 안들리는 사람이고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 나중에 다시 하라시며 수화기를 내려놓으신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떠나시고, 아버지의 형님인 큰아버지를 보내신 후 더 심해지셔서 보청기를 착용하셨는데도 전화를 못해 전해지는 상대방의 소

리를 듣지 못하신다. 아예 처음부터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지기를 포기하셔서 나를 더 안타깝게 한다.

아버지를 모시고 온지 석년째 되는 날 밤일 휴가를 내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러 갔던 길에 아버지와 술계행길에 마주 앉았다.

그리고 보니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단둘이 외식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 어머니랑 함께라면 더 없이 좋았을텐데...

연신 두꺼운 안경너머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며 내가 혹시 회사에 늦으면 어쩌나고 제책이시다. 듣는 것도 그러시고 두꺼운 안경의 도움 없이는 간판 하나 제대로 보실 수가 없다는 나의 아버지 모습을 길보기에는 관심을 훌쩍 넘겼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절절하시다. 하지만 마음도 몸도 어린 아이 같이 약해지셨다.

손재주가 많으신 아버지가 내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절친한 편편테가 우리집 한 쪽 모퉁이에 대달려있다. 그 절친을 내 아이들은 무척 아낀다. 절친을 보면 외할아버지가 생각나서 할아버지 모습을 떠올린다고 한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절친을 보면 나도 아버지 생각을 한다.

막내딸인 나보다 나와 아들 삼 자이 밖에 나지 않는 당신의 손자를 끔찍이 챙기셨던 아버지가 한때는 많이 서운하다 못해 덜기까지 했었다.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를 더워했던 절친인 나는 어머니께만 용돈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는 자식을 평생 먹사할 하다 가진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 또한 아버지가 내 조카에게 준 사랑은 아내아이라서 아니고 내리사랑이었다는 것, 아니 설령 그 사랑이 남아선호사상에서 온 사랑이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랑도 그 사랑 못지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집에서 내 어린시절과 유년기를 보냈던 권정까지는 자동차로 3시간이면 갈 곳을 나는 일년에 두어 번이 고국이다. 어머니가 돌아가

신 후 더 뜰래졌다. 어머니가 재실 때보다 더 자주 찾아가야 하지만 그걸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다. 일년에 한 두어 번 와서 파춥 자야, 달래는 그만 피시라고 달래 때문에 옷이 심한 것이 없다며 "빨도 싫은데, 먹느리는 좋겠냐"고 짜증을 내고 떠나는 막내딸이 딸 차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배웅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까이 보지 않아도 뒤통지 임해진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셨을테니까, 새 언니 몰래 내 아이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난 또 다른 슬픔을 느낀다.

난 왜, 아버지에게 다정다감한 딸이 되지 못했을까? 보청기 끊어라며 내미시는 하얀 손봉투를 풍성스럽게 뒤돌려 드린 것도 같고, 달래 좀 그만 피우시라고 했던 것 등등, 곰곰이 생각해보면 난 잘 맞지 않는 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도 내 아이들은 나를 달지 않아 아버지게 살갑게 군다.

약주를 못하시는 나의 아버지에게 유일한 낙이 되었다면 달래를 지 같은 길으셔서 그렇게 여기 저기 땀구 내셨던 웃도 태운 일이 없었지 않겠다.

"엄마는 나에게 도움 주느라고 화 있었지만 난 너에게 질만 되고 더 바쁘게 해서 안되겠다. 길에 가야지" 하시며 갑자기 내리개시는 아버지, 이 또한 직장과 집을 병행하는 나에게 짐이 필자과 우리집에 더 오래 계시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 이번 여름휴가에는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하시는 내 두 딸들을 데리고 아버지 곁에서 며칠 묵고 와야겠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

내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일한부 글상

정영숙

화창한 봄날 오후다. 어머니가 깨 오신 쪽, 피나리, 참바귀를 다듬으며 어머니는 아버지님 풀을, 나는 내 남편 풀을 본다. "네 아버지가 오늘 나한테 엄청 신경질을 내고 나가셨다. 풀도 보기 싫다..." "어머, 또 그러셨어요. 정말 너무 하신다. 이런 기가 죽으실만도 하신데... 아 병도 어러져라 뻔어요 어머님." "예, 그래도 우리 애들은 아버지보다는 훨씬 낫다." "그건 그래요." "하하, 호호..." 상쾌한 웃음소리가 말을 넘는다.

그것을 바라보던 나의 아들이 우리는 고부지간이 아니라면서 한마디 한다. 고부지간은 왜 이러면 안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남편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본다. 올해 80이신 시아버님은 남에게는 좋은 분이시지만 가족에게는 많은 고통을 주신 분이다. 평생을 밖으로만 돌아다니시고 가족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이 사셨다. 그런 남편 밑에서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부담을 주시려 전전긍긍하시며 큰소리 한번 제대로 쳐보시지 못하고 사셨다. 그런 시어머니가 가엾기도 했고,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기도,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런 분이시기에 오늘날의 우리 가정은 이렇게 지탱되었던 것이다. 말없이, 뒷전에서 계신 듯 안 계신 듯 표나지 않게 집안을 이끌어 가셨다. 자그마한 체구와는 달리 커다란 거목이시고 현명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시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어머니와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된 것도 모두 어머니의 현명함 때문이다. 4남 1녀 중에서 나는 둘째 며느리이다. 위로는 형님이 계시지만 지방에 사셔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결혼 후 7년은 함께 살고 분가해서 '따로 함께'

15년에 살고 있다. 결혼이라는 것이 남편 된 사람하고만 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 남편은 출근을 때머리고 덩그러니 나만 혼자 시부모님 곁에 남게 되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들보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 여자들에게 결혼이란 시댁식구 모두를 포괄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별 것도 아닌 것에 서러웠고 서글퍼서 낄낄 같은 눈물을 콧방울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 '어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부모도 내 부모인 것을...'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러다가도 다시 서러운 생각이 들고, '시'자가 들어가는 '시군치'도 싫다더니 이래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별일과 제사 외에도 어른들이 제사니까 때때로 친척들도 자주 오셨고, 봄이면 원장과 고추장, 가을이면 제주콩을 사다가 해서 제주만 두 팔을 쭉신다. 그리고 자주 절국경도 찍으셨다. 겨울 내내 우리집의 쌀 한 구석에서는 제주쌀 절국장이 뜨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권업주부가 아닌 나는 그것이 싫었다. '메이 사다 먹으면 편할 것을... 나는 허다음에 사다 먹어야지. 수피에 가면 저런인 것을...' 하면서 못마땅해 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자연 어머니께도 상냥하지 못하고 퉁퉁 부어 있는 날도 많았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하시고 참아주셨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도, 어머니께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하시니, 얼마나 최충하고 송구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다음날 정말 갈때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렇듯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나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늘 기다려주셨다. 남이 시댁식이 아니고 내 스스로 반일할 기회를 가지니까 훨씬 낫다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10년 20년이 지나자 자연히 내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그 분을 배우게 되었다.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이 어머니와 인간 대 인간으로의 경이 약한 시기였다. 알뜰한 살림 손짜며, 한 집안의 아내로서의 역할과 중요함을 알없는 실

원으로 배운 사기였다.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어머니가 안계셨다면 내 인생은 삭막하고 적막했을 것이다.

‘효(孝) : 아버이를 잘 섬기는 일’ 이것이 사건의 의미이다. 잘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0대인 우리는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한다. 워로는 부모를 공양했는데, 자식들로부터는 봉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될 거라고. 그러나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하지만 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가 부모를 모신다고 해서 자식에게 나를 모시라는 소리 또한 아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며칠 받을까 이럴까의 문제도 전혀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다. 내가 마음으로 설심을 다했기 때문에 아이 앞에 멍멍하고 내 자신, 한결 부끄러움이 없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잘했다기 보다는 정신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기때 당연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효’라는 글자를 떠올리면 모두 진경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한다. 나 또한 진경 부모님이 모두 계신다. 출단지 하나만 일일 먹고 월납하시서 근면 성실하게 농부로 살아오신, 명절날 읍놀이 밖에서도 장부책을 갖고 다니시고, 70이 넘은 연세에도 동네에서 놀이가는 행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와 그야말로 보살이신 내 어머니에 대한 할말이 왜 없겠는가. 아니, 할말 넘치고도 넘친다. 하지만 그분들의 품은 진경 올케에게 맡기려나. 내가 시부모를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시부모에게 갈하면 내 부모도 누군가가 그런 걸 해주리라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생각은 다 집기로 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적극적으로 살리고 노력한다. 진경부모님과 시부모님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본다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임 없이 평평한 수평선이다. 내 분 모두 똑같은 무게이다.

몇 년 후의 오늘 나는 양기마른 곳에서 불나불을 다듬으며 어머니와 웃음꽃을 피울 것을 상상해본다. 그때 어머니는 일은 못하시고 다듬는 내 손길만 바라보시겠지만...

수족이 불편하실 때 나는 그분 곁에 있고 싶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전 마음의 빛을 덮고 싶다. 아니, 내 마음의 빛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함께 살았던 길이 있어서 내가 좀더 어머니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어린 필자의 말대로 길들어졌다 해도 좋고, 어색도 좋다. 다만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만큼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런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쁘다.

복 시어머니.

나는 그분을 그렇게 부르고 싶다. 그리고 이다음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내 며느리에게도 '내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어쨌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를지도 모른다. 그것은 크나큰 행운이요, 축복이다. 함께 한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가족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다운 행복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더더욱 행운인 것은 그나마 마음을 드리고픈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는 것이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회하느니, 살아계실 때 마음 한 번 더 써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갈래드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지금 갖고 있는 나의 마음만은 꼭 전해 드리고 싶다.

당신이 제서서 내 삶이 더 윤택했다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

엄마와 바나나

일한부 은상

김동진

어렸을 때 저음이다.

자고 있는 형님과 나를 깨우시면 어머니.

어머니 손엔 바나나 세 개가 들려 있었다. 어렸듯하게나마 뜬 눈으로 바나나를 보고 참이 꼭 달아난다. 지금은 외국산 바나나가 아주 많이 수입되어 잘 먹지도 않는 거지만 전엔 그렇게 귀하고 맛있는 음식일 수가 없었다. 엄마 표현을 볼까면 처음 아버지 집에 인사할 때 바나나 한 바구니 포갈 사 가는데 한 달치 월급의 3분의 1이 깨졌었다니 가히 짐작할만하다.

바나나는 그 때는 과일도 아닌 '음식'이었다. 먹고 싶은 걸로 치면 자갈면보다 한 수 위인 그런 게 바나나였다. 아이들에게 뭘 먹고 싶으냐고 물으면 실현가능성 없는 바나나를 피쳐서 한 가닥 희망을 날려기 싫어 그나마 좀더 가능성 있는 자갈면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일대로 바나나가 자갈면보다 맛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어머니 손엔 바나나가 있었지만 어머니 얼굴엔 미소와 보람 그리고 간절이 서려 있었다.

'동근야 동근야 이거 먹어 알론'

부부동반 모임에 다녀오시는 길에 몇 개 가져오신 거다. 집에서 부부동반 모임을 가질 정도면 제 갈사는 짝이었겠지. 그러니 바나나가 나왔을 거고.

‘열은 먹어’

아빠는 젓고 제쳤지만 이상하게도 열마 목소리는 꼭다. 아빠도 모르고 계시는 파나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 와두면 다음날 시키면 쪽으로 변할려고 냉장고에 넣어두자니 아빠가 혹시 물어라도 드릴 때 볼까봐 그러셨던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가 백화산 계 바로 오시자마자 아빠가 젓으실 때 감시망을 피해 자고 있는 우린 배위 입에 물꼭 넣어 주시는 작전이였다.

파나나는 달 3개.

‘와 한 개 반이나 먹을 수 있겠구나’

일단은 기쁘고 입에 넣기부터 했다. 열마 목소리의 나직함의 뜻을 읽은 우린 파나나를 장도 열 개 상태에서 먹는다. 꾸역꾸역, 가만 보니 열마 아직 웃도 안 감아있었다. 오시면서 온통 이 생각만 하겠나보다. 아이들에게 먹일 파나나를 아빠에게 쫓긴다는 생각보다는 자존심이 두꺼웠던 아빠에게 파나나를 들고 온 사실을 들기엔 떨어질 불호령이 무서웠으리라. 그렇게 파나나를 먹었다. 원래 물맛인 파나나, 아니다. 그 화끈은 물을 파나나에 비교할 수는 없다. 물맛인 파나나 권소다 권소. 이 말 권소. 입안에서 스스로 녹아버린다. 적도의 나라 콩고에서의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빨리 녹을 수는 없다. 지금은 그때 생각이 나서 아무리 녹이라고 물을 모아 흘려도(?) 녹일 않는다. 그 때 파나나는 좀 달달나보다. 왜 그렇게 입안에서 녹던지.

아빠가 젓고 방으로 들어오실 때쯤 간벌의 차이로 우린 거의 다 먹었고 열마의 반이다.

‘열은 누워!!’

우린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눕는다. 막 시라한 뿔뿔일으키기에서 한두어개 지났을 정도의 속도로 눕는다.

꽤 긴 모든 시간과 공격에 있어서는 여유나 느긋이라는 단어가 무서고 들어올 틈이 없다.

‘라!!’

그것도 물어 동시에, 남자아자 바로 시켜서일 짐작 않는다. 할마의 피도를 파악한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는 책을 한다. 할마가 본래 아파 물레 먹이는 걸 원하셨으니 우선 최소한 우릴 위해 숨겨왔던 바나나를 위해 또 그런 할마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할님... 꼭 TV에서 나오는 그대로 용내를 내어 준다.

'음나음나'

사실 '음나음나'는 드라마나 만화책에서만 나오는 자는 모습이지 실제로 음나음나라고 할때를 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통창그리지는 맞음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아주 정확한 맞음으로 딱 딱 끊어 말한다. 읽는다고 보는 게 낫을 듯싶다.

아빠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본다. 내가 물어도 이상한데 어른인 아빠가 물어 오죽하겠는가.

'뒤췌'

'응 그냥 해들보고 있어. 나도 이제 짝어야지'

그냥 넘어간다. 8살아리의 음나음나의 속뜻을 알아내고 숨겨진 비하엔드 스토리를 캐기엔 아버지로서의 세봉도 구겨질 때고 그러기엔 맘도 늦고 피곤해서이지 결코 연기가 자연스러워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이 걸렸고 밤새 난 입 속의 바나나 향기를 음미하며 행복하게 잘 수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다

아직도 이상한 걸 못 느꼈으면 반성하길 바란다. 이상한 건 바로 이거다.

바나나는 달 3개.

근래 꽤 난 당연히 내가 한 개 반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

후 그렇게도 떠나나가 귀하던 시절이면 어른에게나 어린이에게나 귀하
긴 마흔가지인 마하나, 왜 난 당연히 한 개 반이 내 커라고 생각하고
또 정말로 한 개 반을 먹었던 것일까.

엄마는 그럴 줄 속에 감수시느라 얼마나 눈치를 보셨을까.

다같이 무부동만으로 모인 자리에서 그 많은 눈을 피해 물에 감을
때까지도 그 극도의 긴장과 초조.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 보복을 위해 긴 시간 고심하셨을까 생각을 하
면 엄마가 과연 그럴 드시기나 하셨을까.

하나를 먹느니 하나라도 더 싸 가지고 오시려고 입에도 안 대셨을
게 자명한 일이다. 또 그렇게 그 길 문을 나서는 게 다가 아니다. 돌아
오는 길에 아빠에게도 들리지 않아야 한다. 아빠의 눈을 피해 혹시 물
에서 떨어지거나 삼을까 조심조심하며 들고 오셨을 엄마. 그리고 아파
의 젓는 타이밍을 잘 잡아 우리를 일으켜 앉혀놓고 먹을 때 걸리는 시
간과 아빠가 젓는데 걸릴 시간의 비교 예측까지...

처음부터 알라지 어느 것 하나 골머리를 쏘어가며 우릴 먹이기 위해
신경 쓰지 않은 게 없었을 엄마지만 난 그렇게 건넨은 감동의 마하나
3개를 보고 그 중 당연히 한 개 반은 내 커라고 생각을 했었다. 왜 엄
마 형님 나 이렇게 3명이 한 개씩 먹을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난 이렇게 처음날 먹었던 하나나를 늘 생각해보며 커왔다. 하지만
그 때 내가 한 개 반을 먹어버린 게 마음 아픈 일이었다고 생각한 건
좀 황폐한 일이지만 물과 일년이 새 되지 않는다. 그저 하나나를 그
밤에 엄마가 불래 들고 오셔서 먹었다는 사실 하나만은 감동스럽긴 했
어도 1개 반과 1개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줄은 짐작
못했다. 그리고 황폐한 일이지만 얼마 전에 비로소 깨달았다.

‘엄마도 먹어, 한 개씩 먹자’

이 말 한마디면 되었을 것을 왜 하지 못했을까. 그렇다고 냅들 드실
엄마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다고 진짜 드신다면 내 손에 칼을 지진다.
우리 엄마니까 그건 내가 분명히 안다.

처음에 한 개 반이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셨던 분들...

그런 일만 안 먹나 하고 생각 미처 못했다가 나중에 이거 보고 아셨을 분들... 반성하자...

내가 그 어렸을 때 자다 일어나 바나나를 먹던 시절과 지금 그걸 발견 못하셨던 분들의 현재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뜻한다. 그리고 지금도 엄마가 해 주시는 음식 하나에 내가 그렇게 당연하다는 뜻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한번 반성하고 살펴보자. 손익한 감정표현이라는 쉬운 말로 '감각' 자체를 여과 없이 배설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효도는 큰 게 아니다. 이렇게 작은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르라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들은 그 첫술에 얼얼 해볼라 확신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자식이 부모 감동시키는 일이다. 이토록 작은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고급부가가지않을 이 가능한 건 세상에 별로 없다. 그 별로 힘들지도 않는 작은 일을 소중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잘 돌아보라.

오늘은 바나나를 사 가지고 가야겠다.

그렇게 팔권 모르겠지만 막 두 개만 사가야지. 그리고 엄마에게 '엄마도 찍어 한 개씩 찍자'

라고 어렸을 때 못했던 말을 그래도 하고 싶다. 반말이지만 막 한번만 그래도 돌아가시 해봐야겠다.

물론 단 두 개가 있을 땐

절대로.

절대로.

나랑 똑같이 나누어 한 개를 다 드시지 않을 엄마지만...

그래도... ★

고 향 의 품

일한부 분상
박 미 선

“상상한 땅을 토마토 사세요.”

“지금 막 밭에서 따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이었던 난 여름 피막벌 아래서 손바닥만한 양산을 쓰고 시어머니 옆에서 경사를 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빨간 방울토마토를 따는 재미에 푹 빠지다가 얼떨결에 온양갈매까지 훑어오게 된 것이다.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선 원 한 할 쓰시지도 않고 적니까지 거르시던 분이 그 날은 내게 아무르트를 사주셨다.

서울 새댁의 께다른 농사체험현장(?)은 그저 재미있기만 했었다.

“어머니! 저도 농사 배우고 싶어요.”

“이번 길 위하여 배우려고... 좋은 물건은 서울에 다 모여드는데... 온 주고 사먹으면 될 것음...”

절년 시절까지 온몸 시골에서 살아온 순박한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고, 자연 속에 과분히 있는 그림 같은 시골풍경속 시댁길이 좋아서... 어디 여행한법 같 줄 모르는 난 시댁을 여행 살아 다녀오곤 했었다. 밭 끝리는 만큼 안겨주는 자연의 소산물!

비록 날의 땅을 갈구는 가난한 농사꾼이지만 자의 키우듯 애지중지 하시는 보드밭이며 고구마밭, 고추밭, 토마토, 참외, 수박, 들깨, 마늘, 배추, 감자, 파, 양파, 상추, 가지, 호박밭, 그리고 시작하신지 몇 년 안 된 콩귀밭, 마늘까지...

들로 나가지만 하연 싱싱한 야채와 과일, 약초들까지 한상 부럽하게 차릴 수 있었다.

현혹다리 못쓰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여가의 몸으로 여백 그리 많은 농사를 지으시는지...

할!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여느리가 옥수수를 좋아한다고 그때 할 많이도 심으셨다.

양동이를 들고 옥수수를 따러 갔는데, 전날 비가 와서인지 촉촉하게 젖은 옥수수 수염은 마치 탈색되어 상해버린 머리카갈 같았다.

그런데, 이게 현실, 끝물들을 삼키 불분하게 켜 에벌레가...옥...

"엄마야!"

단숨에 뛰어나와 무릎부들 꿇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무슨 일이냐고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시던 어머니!

"벌레가... 나.. 봤어요..."

어머니는 대동댕이치던 옥수수를 주우러 가셨고 껍질까지 모조리 벗겨진 알록달록 한옥수수 통째지만 이 못난 여느리에게 안기워졌다.
"벌레도 무시위하면서 무슨 농사를 배우겠다고 그러냐."

...

그날 밤 오기장 속에서 뜯어먹던 옥수수는 왜 그리 맛나던지...
그때 저술, 먹다 먹다 남은 옥수수는 말리워서 강냉이로 튀겨져 열무지 내 입을 즐겁게 했다.

해마다 8월이면 700정 포도농사의 마지막 시험대가 기다린다.
나무 꺾길 벗기기, 손지르기, 기름주기, 소복하기, 송이따들기, 봉지 싸기 등등, 그동안 노고의 결실이 곧바로 온몸으로 환전되는 달인 것이다.

잘라, 해풍에 노출조사, 가락시갈의 시세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일 년 내내 그 고생을 해도 풀갈 빼고, 비료갈 빼고, 봉지 갈, 박스 갈 빼면 고작 몇 백만원!

"이제 농사 그만 지으세요." 남편의 말에.

"너희를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

확진 아들 하나 낳았고 밥을 다섯이나 두신 어머니 아닌가!

다들 출가하여 사위에 손자들이 즐음이 스무 열은 넘으니...

이제 자식을 찍는 기쁨으로 그 고생 마다하지 않으시며 고독나무처럼 굳어진 그 손이 여지않아 일손을 놓으시게 생겼다.

하필 그 혼동내에 세계 최대 LCD 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LCD가 된지도 모르시는 어머니엔 생명과도 같은 그 락전을 두고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맞이하게 되신 것이다.

상대는 너무나 거대한 대기업 "삼성". 40년을 남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사셨고 그 많은 땅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거저 농사를 지으셨는데...

무슨 보상이랄시고 이과트를 보장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며칠 전 관방자까지 대일해서 대건의 도지사를 만나러 데모 대열에 합세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다행이 윤리위원회에 불명이라도 던져 넘어뜨리려는 그 심정을 누가 모를까.

최악해져가는 육신! 마지막 숨 거둘 때 평생 살아오신 그곳에서 잘 듣고 싶었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키워갈 주어진 고향을 잃는 셈이더라.

요즘 들어 부쩍 남편은 시간만 나면 고향으로 향한다.

기억과 사진 몇 장의 추억으로만 간직될 어머니 풍습이 따뜻한 그곳을 더 느끼고 싶어서일 게다.

난, 이제 그 많은 소산물을 누릴 수 없다하니 괜히 마음이 허전하다. '어머니! 포도 고구마 못 먹어도 좋아요, 고향이 없어도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 비무르는 그곳이 우리들의 돌아갈 고향이니깐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사그라든다. 농사짓고 싶어했던 할부지의 꿈도 함께... ★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효(孝)는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

일반부 동상
갈 우 석

부모에게 효도라고 나라에 충성라고...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다. 아아도 부모에게 효도라고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 이 말에 의미를 제기할 사람은 한국사람 중에는 거의 없을 것 같다. 그 중에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먹고 살기 바쁜 보통 사람에게는 다소 먼 이야기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매일매일 의미 있는 실존적인 문제로 남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효도는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있을까? 공부 갈해서 명문대학에 가는 것도 효도라 부르고 나이 들어서 부모님 잘 모시는 것도 효도라 부른다. 이와 같이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효는 우선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시고, 또한 자신의 삶을 잘 살으로써 부모에게 보답을 가지게 하는 것,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자식이 부모를 잘 모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자제가 불경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2,500여 년 전에 공자님에게 감히 비슷한 질문을 한 제자가 있었던 모양이다. 다름은 '논어(論語)' 양화(陽貨)편에 나오는 재미있는 대화 내용이다. 제자인 제야(宰父)가 스승 공자에게 부모 돌아가신 후 3년 장이 너무 길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문이 많이 드니 1년으로 줄여주고 건의한다. 공자는 제야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음식이 넘어 거나며 야단을 친다. 자신의 합리적인 질문 내용을 이해 못한 스승의 질책에 제

야도 파가 나서 제 나가 버린다. 혼과 남은 증거는 어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품 속에서 적어도 3년은 보살핌을 받는데 제아 제 녀석은 어떤 부모의 보살핌도 못 받은 늙 길다며 탄식한다. 여기서 권문적 효 관념의 중요한 근거를 알 수 있다. 바로 보본(報本) 관념이다. 물론 돌아간 이후에 3년 살까지 지내기는 힘들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가 날 입혀주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보본관념은 효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통일에 매우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보편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혼과 육아가 필수적이다. 끊임없이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길러져야 한다. 인간은 늙으므로, 그러면 노인이 된 부모를 자식들이 책임지고 모신다. 다시 그 자식들이 늙는다. 사회 구성원은 계속 태어난다. 이러한 순환이 잘 이루어지려면 연결고리가 튼튼해야 한다. 바로 그 연결고리가 효라는 관습 대지는 규범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젊은 사람이 내 부모가 아니라도 나이 든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합리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자식이 부모를 잘 모셔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금동서를 딱딱하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효도관념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다. 만약 인간이 똑같이 동물처럼 자식을 낳아라자 자식이 성체가 되는 존재라면 효라는 관념은 생기기 않았을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 자식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았으며 부모에게 보답을 주는 것이 효도라고 했는데 나는 부모 자식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의 매우 많은 부분이 여기서 생긴다고 본다. 삶을 잘 산다는 것에 대한 해석과 입장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과 자식이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할 때, 결혼을 할 때 많은 갈등들이 생겨난다. 나아가서 이 질문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효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통한다. 과연 부모의 요구가 나의 가치관이나 적성과 일치하지 않거나 반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효과적? 왜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까? “다 너를 위해서야!”라고 말하며...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까지 보내서 어른을 만들어 놓은 부모가 자식의 경력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데 왜 갈등이 생길까? 자식이 왜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글자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본다? 다음은 『논어(論語)』 위정(爲政)편에 나오는 대화 내용이다. 효가 뭐냐고 묻는 맹무백이라는 젊은이에게 글자님은 자식이 맹만 안 권리주면 그 이상의 효도가 없다고 말한다. 자식이 아파본 사람이면 이 말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대 간에 따라 제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효의 조건이 될 수 없고 가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보편적인 정감, 그러니까 나의 산 채를 아프게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마음이 효라는 것이다.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 남편을 잃어 사별하고 두 자식을 키우는 젊은 과부가 개울 건너 사는 남자와 바람이 났다. 주위의 눈도 일으니 아이들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서 살자는 남자의 끈질긴 회유에 그만 행복한 과부가 아이들을 재우고 도망나와 개울 앞에 왔는데 개울에 이제까지 없었던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더라는 것이다. 영아가 매일 밤마다 꿈을 나와 개울 건너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알게 된 두 아들이 일다가 개울 건널 때 한 개울물에 다리가 걸리지 않게 전 날 밤에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아는 자신의 과오를 뒤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다시 돌아왔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부모의 품을 생각하는 자식의 효가 부모를 바꾼 예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든가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교감에서 유지되는 인간적인 예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야겠다. 효의 두 가지 내용, 즉 부모를 모시고 또 부모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서 보람을 느끼게 한다는 내용의 근처에 존재하는 것을 부모와 자식으로서,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양방향적이고 보편적인 경감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어찌 비한다면 경감이 억압과 배은망덕이 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말이지만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만든다면 자식의 효가 부모를 만든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릴 때만이 효가 사회통합과 유지라는 본래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부모님께

일본무 동상

송영준

해병대 입대를 5일 남겨두고, 밤을 지새워가며 제가 해병대를 가야만 하는 이유를 눈물과 함께 편지로 세 내리갈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권역한지도 3주가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 동안 정말 힘들었지요? 하나밖에 없는 못난 아들, 해병대에 보내놓으시고서 2년여의 시간동안에 단 하루라도 편히 주무실 날이 없으셨겠지요. 하지만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분의 아들이 이렇게 무사히 권역을 했습니다.

처음 해병대에 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두 분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서, 결국 할 수없이 안 가겠다고 말한 후에 몰래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병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뻐했는데, 막상 통지서를 받은 후 5일 뒤에 입대한다고 하니 많이 막막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말함드라지도 못했는데 이제 두 분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5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함드라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 상국지를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인 제갈량의 출사표 형식을 빌려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도중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제 그리 두 분을 힘들게 해드렸는지, 좀 더 효도하고 말함을 잘 들을 걸 그랬다는 후회가 임습해했습니다. 그렇게 후회와 두 분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 속에 품은 제 편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편지를 읽고 울고 계시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에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서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병대교육훈련단에 입소하는 날, 문단 문 앞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때에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두 분을 뒤로 한 채 마지막 작별을 해야 했던 기억 또한 잊혀지지 않습니다.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두 분 생각이 간절히 났습니다. 비록 몸은 제가 할 줄겠지만, 막대한 인건비를 해병대에 보낸 두 분의 가슴은 얼마나 험하지 않을까. 두 분의 이러한 아픔에 비하면 나의 지금 이런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간에 비상훈련을 받다가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데, 왜 그리 두 분이 보고 싶던지요. 같이 있을 때 좀 더 잘 때 드릴 걸, 왜 그리 두 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지금 이런 나의 고통은 두 분께 불효한 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문단교회에 가서 두 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때어나시 부모님이 이토록 보고 싶었을 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두 분을 위해 진실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부모님을 불복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이 불난 불효자는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도 잘 불복드리지 못했고, 이제야 무언가를 느끼겠는데 이미 저는 군대에 있어 부모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발 우리 부모님을 불복달라고 그렇게 울어 기도했습니다.

문단을 수료하고 처음으로 한 어머니와의 전화통화. 어머니께 격려한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웃으며 힘차게 얘기했지만, 이미 제 눈은 눈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두 분이 너무 보고 싶은데도, 군대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보낸 첫 휴가는 저에게 평생도록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였습니다.

니다. 해병대 징복을 입은 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찾아간 영화관, 아버지와 함께 밤늦도록 소주잔을 비워가며 고기를 구워먹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일들, 소박한 일들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많은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두 분의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다라면, 아마 이토록 험난한 해병대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은 지나가고 저도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해병대에서 느꼈던 두 분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을 잘 간직하며, 앞으로 두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어느덧 저도 23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삶의 무게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살아오신 세상이 이렇게 험난한 곳이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고생하시며 키워 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두 분의 관심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

어린 날의 카네이션

청소년부 최우수장
세월이고 2학년
배지수

내가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내 남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우리 엄마 애하는 그 당시 우리집의 어려웠던 형편 때문에 주말 부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가 사물에 있었기에 애하는 사물에 남겨져있고, 엄마는 우리의 함께 어머니가 운영하는 서점택유계소에서 일을 가들기도 했다. 우선 그곳 학교와 가까운 빌리에 집을 얻었고, 그렇게 세 식구는 평택이라는 낯선 곳에 서서히 발을 옮기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정장을 입고 서류를 만지면 우리 엄마의 손은 그릇을 닦고 음식을 나르고 계산기 두드리느라 스나루 캄캄마냥 까칠해져 갔고, 사무실에서 툰 얘기, 술집얘기, 오가는 남자들의 구질구질한 영내와 온갖 스트레스에 찼은 행복을 입고 화근하시던 우리 애하는 집에 와서도 활활이 혼자 밥을 차려드릴 생각을 하니 너무나 마음이 저러웠다.

서로를 의지해야 할 두 부부가 잠시 떨어져 있어 몸과 마음을 수스르느라 급급한 이 시기에 내 동생과 난 어떻게 조금이나마 집을 덮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곧 어머니날이 다가왔다.

그날은 어버도 평택에 내려오셔서 오렘만에 우리 내 식구가 시골집을 거닐며 오붓한 하루를 보낼기에 햇살에 바친 나뭇잎의 소록빛마저 마냥 즐거웠다. 그때 내동생과 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얼마, 아버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편 석공으로 예쁜 카네이션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다. 돈도 없었을 뿐더러 그곳은 시내가 멀었기 때문에 카네이션을 시라 그 먼 길을 내동생과 내가 같이 업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마와 아버를 깜짝 놀라게 드리려고 조심조심, 조용조용 귀퉁거리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레 짚었다. 그리고 "일마, 아버 사랑해요." 라는 글귀를 적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버가 평택에 내려오셨고 그 기념으로 이모네 식구들과, 우리 집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저녁을 함께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우리 사촌오빠가 이모, 이모부에게 생크림 케익을 선물했고, 곧이어 카네이션 생화도 달아드렸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 종일 정성스레 짚은 두 송이의 종이 카네이션을 꺼내 수줍게 달아드렸다. 물론 우리 일마, 아버는 오뎅에 하셀기에 나의 내 동생 또한 가슴이 부듯했다. 그런데 그때 이모의 장난스런 한마디가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겨주었다.

'아- 우리 아들은 나한테 생화를 달아 주는데, 너희들은 낚자한 종이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거야? 오오, 이걸 죽은 꽃이야, 죽은 꽃'

내동생과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물론 이모가 기분 좋은 마음에서 장난스레 던진 말이기여 우리 일마, 아버도 "이게 뭐야?" 하면서 웃으셨지만 우리는 이미 어린나이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컸다.

하루 종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든 것대, 힘들게 일하시는 일마, 아버가 이것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실지 생각하며 기쁘게 만든 것대.

내 동생과 나는 즐거운 어른들의 이야기 소리를 뒤로한 채 방으로 달려 들어왔다.

그리고는 참된 눈물을 조용히 쏟아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팔아서 손을 꼬옥 잡고 그런 말을 한 어모를 원망하며——

그리고 한편으론 어떤 생각도 들었다. 정말로 우리가 만든 별 볼일 없는 것 때문에, 어모의 낫과 비교되는 엄마, 아빠는 얼마나 후생하셨을까 하고 말이다.

어른들끼리는 장난스러우며 주고 받았던 즐거운 농담들을 우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 엄마와 어모가 방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우는 것 보고는 어모는 굉장히 마축해하셨다.

“아이, 장난한건데 뭐 그렇게 우나,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미안하잖아.”

내내 미소를 보이시던 엄마는, “엄마가 어모 때쳐애줄게.” 하면서 우리를 달래셨다.

별이 유난히 많이 떨어진 그 밤이 오기까지 어모는 그렇게 우리를 달래고 또 달래노라 한바탕 진을 빼고 돌아가셨다.

어제와 생각해 보니 엄마가 웃음이 미운다. 그 순수했던 어릴 적, 생활에 지친 엄마, 아빠를 위해 작게나마 뉘그러서 기쁘게 해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정말 간절했었나 보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엄마, 아빠보다 키가 훌쩍 큰 지금의 우리는 그 어린시절보다도 더 잘 헤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진다.

일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공부 량 때문에, 일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였다. 삶의 굴레에서 헛바퀴를 돌리며,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이 왜 따뜻한지, 왜 매일 내가 부른지 알지도 못하고 달려오던 지난날. 돌아켜 생각해 보니 손과 발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건네며 웃으시는 엄마, 아빠가 늘 옆에 계셨다. 그런 부모님께 우린 우리 속만 차리고 자기적이었다면 아들 딸 여덳기에 그 동안 부모님은 얼마나 싸우며 하셨을까.

마음을 되잡고 오늘은 조용히 편지를 써본다. 그동안 여기저기 있던 나를 반성하며, 또 어린 날에 고사라 같은 손으로 예쁘게 카네이션을 집었단, 그러나 이제는 연필을 잡고 수학공식, 영어 단어 쓰기에 급급한 이 손을 반성하며 그렇게 편지를 쓴다. 부모님께 하고 싶었지만 축스러워서 못했던 말들, 또 요즘 회사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건강 때문에 집에서 쉬시는 엄마를 위해서 오늘 만큼은 두 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드리는 작은 글을 보낼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부지해서 달려 카네이션을 만들려 한다. 왜 생화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접는 이 카네이션은 생화같이 짧은 복숭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방 떨어져 죽을 생화보다는 매일 책에 꽂어놓고 내 식구가 함께 보며 웃을 수 있는 이 꽃이아말로 영원히 살아있을 꽃임을 믿기에, 지금 카네이션을 너무나 오랜만에 접어보는 내 손 끝자락이 기쁨으로 차려온다. ♣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글상
세일여고고등학교
노지현

어느덧 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라는 시
간에 접어들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병 가게를 하나 시작하셨다.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대학생이어서 우리 집은 주말이 유일한 가족의 날이었다. 처음에
는 어머니가 병집을 한다는 것에 마냥 신이 나서 좋아하고 친구
들도 많이 부르워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쯤 모든 아이들
이 겪는 사춘기라는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만큼은 우리 얼마가
가게를 해서 나를 소용하 하는 것 같더라 멀도 안 되는 핑계로
중중 얼마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다.

어마 제일 근원이 되면 일은 내가 2학년 때 2학기 회장이 되
고서부터이다. 나는 성격이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이어서 어디 한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2학년 때 반장은
내가 어떤 리더 자리에 설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러
웠었다.

일원선거가 있고 내가 2학기에 일원이 된 일은 너무나 기분
떨어졌다. 하지만 나의 멀도 안 되는 투정은 그때부터였다. 1학
기에 일원이었던 친구는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배울 점도 많았
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가 많이 질투했던 친구였다. 항상 돋보였
던 그 아이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부르웠는지, 특히 그 아

어의 어머니는 어머니회와 임원이어서 성생님들한테도 미움을 많이 받는 아이였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임원자리도 쟁취 자신이 없어져갔다. 괜히 아이들아 뽑아준 임원 지명때도 불구하고 성생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했고, 내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했다. 그러면 어느 날 학부모 총회가 있던 날이었다. 솔직히 그 날 나는 얼마한테 학부모 총회가 있다고 할중드려지도 않았다. 가계가 바쁘시다는 이유로 안 오실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날 저녁 나는 나도 모르게 얼마한테 대들었다. 바로 그 날이 내가 얼마와 마음을 아프게 한 날이다. 아직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남들 보다 항상 더 좋은 것만 일러주시고 보여 주시려면 어머니와 노력할 그 당시에는 왜 몰라 봤던지...

항상 12시나 되어야 가게 문을 닫고 오시는 얼마께 "수고하셨습니다" 는 말은 못하고 오하려 대들거나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죄송스럽다. 그렇게 내 2학년 생활은 끝나고 3학년이 되었다. 솔직히 3학년은 그래도 2학년 때보다는 철이 들어서 얼마가 학교에 꼭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선뜻 임원이란 자리를 나서기 또한 조금은 어려웠다. 하지만 그때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건 얼마였다. 얼마는 어제는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학교 열도 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직접 어 일을 겪지 않은 사람 들은 잘 모를 것이다. 너무나 얼마한테 죄송스럽고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는 얼마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보였다. 그때 만약 얼마가 나에게 먼저 손을 벌여 주시지 않았다면 다시 남들 앞에서 리더라는 자리에 서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 와서 보면 나는 내 자신이 참 어리석었었다. 리더라는 자리는 내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

나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이다. 지금은 비록 스스로도
척척 잘 해 나가고 있지만 이제 나는 말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받들하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부
모님이 위해서 나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셨던 덕분이라는 것을. 잘
일한 예전에는 걸음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부모님이 나를 위한
것 같고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항상 나를
위해 바쁘시고 정도 제대로 추무시키 못하시는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을 말이다. 그때는 속스런위 대처 제대로 할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모님 회송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

효를 실천하자

경소년부 은광
연신중학교
황인수

1998년 여름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박들이라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의정부 명경식당에 자리를 잡아 식당 사장님이 되었다. 예전보다 더 사림이 많은지 예전보다 집에 오시는 것이 더 뜰어 지셨다. 지랄 아주머니 3명,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항상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요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요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지께서는 요리를 만들어서 주분을 받아 손님들에게 음식을 쟁반에 담아서 친절하게 태어붙여 올려놓으신다. 나도 일년에 몇 번씩 와서 아버지, 어머니 일을 도와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아버지, 어머니와 결별할만 되었다.

나는 어떤 결핍들이 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님데.....

아버지 어머니는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

1998년 중반기 어느 파스한 햇빛이 뽕뽕 내리는 여름날이었다.

누나가 갑자기 나를 깨웠다.

"편수야, 엄마 아파 전화 받고 식당에 다시 나가셨어. 명경식당 불났다!" 라고 큰소리로 나에게 말을 하였다.

나는 아직도 성형피약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장어 몇 개 상해서 나도 억지로 듣는 척을 하였다.

누나는 계속 말을 끊지 않고 나에게 말을 하였다.

나는 어머 불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은 누나가 나에게 해 준 이야기다.

어떤 학생이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었는데 그 담배갑소를 길바닥에 버렸는데 불을 잘 안 끄고 버린 것이 화근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담배불이 하필 우리 영광식당에 붙어서 점점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전화를 받고 얼마, 아바께서 서둘러서 나가셨다고 한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아바께서는 식당 복원을 위해서 식당에 더 오래 있게 되셨다.

나는 내가 할라 공부를 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효는 무엇인가?

효는 필만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나는 효에 대해 더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요즘에 항상 아바가 개인 가게에 연부 전화를 하고 있다.

역시 아버지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들어오시지 못하지만 연부전화를 하면 나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왜냐하면 아버를 잘 보지는 못해도 전화로 말을 하면 안도의 숨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24시간 편의점을 하시다.

어머니는 밤에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께 전화를 드린다.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께서 힘든 일을 안 하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계셨으면 좋겠다. ☆

새롭게 달라진 내가 되어...

청소년부 동장
세일어실 3학년
김 혜 인

누구든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부모는 헌없이 자식을 사랑해주며, 자식은 헌없는 그 사랑을,
헤어질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자란다.
사람들은 직접 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부모님의 고생을 모
른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부모와 자식의 상호의존도는 줄
어들이고 부모는 잊혀진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가족도 챙기기 바쁜데...' 이런 생각
속에서 부모는 자식의 뇌리 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이다, 어
떤 부모든 간에 자식 낳을 때의 상고를 다 잊고, 자식만 바라보
며 끊임없는 사랑을 준다.
나도 18년 동안 그 고마움, 나를 위한 부모님의 고생, 되돌아
본 적 없다...
어찌까지 정말 착한 딸도, 부족한 딸도 못된다.
항상 난 내 주위의 친구들을 보며 불평했고, 내 생활에 절대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업계에 오고 나서도 다른 아이들에게 뒤쳐질까봐 없
는 실림에 항상 학원을 꼬박꼬박 보내주셨고, 내가 원하는 것은
거의 해 주셨다.

우리 집은 말한 셋인데 항상 우리 부모님은 불평 많은 나에게 당신들 고생하시며 뉘까지지 않게 키워주셨다. 언니보다도 내 동생보다도, 항상 나에게 기대를 해주셨고, 나를 믿고 계셨다. 아직 난 철이 덜 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어찌 보면 이기적인 나 때문에 부모님은 할 필요 없는 고생을 하시는 것 같다.

IMF가 되고 우리 집은 점점 힘들어져만 갔다.

하지만 끝까지 나를 위해, 그리고 언니를 위해, 동생을 위해 지금까지 애써 주셨다.

난 아직까지 그 큰한 카네이션을 달아 드린 적이 없다.

'반포자요' 한 말이 있다. 까마귀와 요(糞)를 뜻한 말이다. 자신을 먹여 살린 어미 까마귀를 풍양하는 새끼 까마귀의 요를 뜻한 말이다. 한낱 대물에 불과한 까마귀에게 '반포자요' 라는 고사성어가 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명예나 부가 아닌 자식으로서의 진정한 효와 사랑이라 느껴진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댈다는 것, 당연한 일이다.

부모는 크고 풍성한 나무가 되어 작은 묘목에 불과한 우리를 고난과 시련 속에서 강력한 버팀목으로 지켜주고 있다.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서 더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 드려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버팀목으로 계시서 자치고 험드신 부모님을 위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부모님도 가끔은 우리에게 기대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듯, 자식들에게 또 사회에서 매일같이 어른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거란..

지금 난 얼마나 지란 나무일까?

사실 난 부러도 채 못 내린 작은 묘목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로운 환경과 넓어만 보이는 사회로부터 피하고

살아서 그 바깥쪽 위로 숨는 것일 것이다.

내가 큰 나무가 되더라도 가쪽이라는, 부모님이라는 공기를 마시며 태평과 햇빛, 청성어린 손길 속에 살겠다...

불교에 이런 설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 부처를 찾기 위해 온 나라를 떠돌아 다녔지만 그가 찾는 부처는 어디에도 없었다. 낙담한 그를 보고 지나가던 한 승려가 말했다. 지금 집에 가면 저 고리를 거꾸로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올 여가 있으니, 그가 바로 부처라고... 그 사람은 집으로 달려갔다. 정말 그 승려의 말처럼 저고리를 거꾸로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부처가 나왔으니, 그것은 자식이 돌아온 기척을 느끼고 반가움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어머니였다. 자식을 얼마나 기다리고 그리워했으면... 그 어머니는 밤낮으로 자식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 모성은 필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님... 그 분들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분으로서, 인생의 선생님으로서, 친구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시다.

그 사랑을, 은혜를 내가 언제쯤 갚아줄지 모르는 모르겠다. 그냥 순간순간 당신보다 자식에게 희생하는 그 모습에 존경을 표하고 감사한다.

현상님과 비교하고 불만 많고 투정 많은 못난 딸!

정말 솔직하지 못한 딸이지만, 이번 어버이날엔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예쁜 카드에 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정소년부 회장
신연준 3학년
박소현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카드와 작은 선물을 드리며 기뻐하는 부모님을 보니 매우 부럽고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평소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한 말 한마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꼭 깨닫게 드릴 때 부모님께서는 더 환하게 웃으시고 기뻐하셨던 것 같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효'. 어쩌면 효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알고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본적인 것도 잊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말로는 "나는 부모님을 매우 사랑한다. 이 다음에 커서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여행도 많이 모시고 다니겠다"고 하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한다. 그리고 진정한 효는 맛있는 음식과 여행 등 그런 것을 많이 해 드리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흔히들 하는 것 같다. 물론 나도 이런 것이 진정한 효가 아닌 줄을 알면서도 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을 때 나는 이렇게 여쭙어 보았다. "기쁘시죠?" 이 질문에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 매우 기쁘다. 하지만 평소엔 내가 짜증을 덜 내고 웃는 것이 더 큰 기쁨이란다." 부모님의 이 한마디는 그 동안의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항상 부모님께 불평하고 짜증부터 냈었다. 어버이날 아침, 친구들과 만나는 약속 장소까지 가는 길에 어떤 한 남자애가 휴대

전혀로 엄마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는 대충 이러했다. "그러니까 엄마 빨리 나와 엄마 때문에 나 죽었잖아 빨리" 그리고 울음 불평과 불만,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그 아이를 보듬어주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엄마께 저질 수 있지?' 하지만 난 곧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부끄러워졌다. 그 동안 내가 우리 부모님께 했던 행동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이 들으면 나도 욕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요도는 어버이날 하루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로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부모님께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일상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일지라도 부모님과 대화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일어서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불효를 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꽤 많다. 부모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 차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부모들, 요양 쓴 사회문제론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 부모에게 맞거나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아껴 주시고 보살피고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우리에게 무언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부모님께 우리는 평생 요도를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 이 날 하루만의 요도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다. 어버이날에 갖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매일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요도는 부모님께 하는 요도이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부모에게 버려지는 자식들과 자식에게 버려지는 부모들, 할머니들, 할머니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영도원에 봉사를 가서 진화 우리 할머니들, 할

머니에 하는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요도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말벗도 되어 드리고 즐겁게 해 드린다면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의미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요도의 바탕에는 물질적인 것보다, 진실어린 사랑으로 하는, 마음이 열리는 정신적인 요도가 더 중요한 것일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요도도 평생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 부모님께 요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미 부모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 나도 이런 경우로 인해 매우 후회를 한 적이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 때까지만 해도 잘 없던 나는 외할아버지께서 병으로 고생하실 때도 할아버지께 하는 심부름도 귀찮아하고, 할아버지께 짜증만 내고, 속성한 일만 꺼져 드렸다. 언제나 우리 집에 오실 때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 오시고, 우리에게 무서운 도깨비 이야기도 해 주셨던 할아버지가 고맙고 또 그렇다. '그 때 할아버지께 더 잘해 드릴걸, 언더도 더 성의 있게 해 드릴걸.' 하고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 요도, 진정으로 웃어뜯을 거르게 해 드리는 요도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있다. 부모님께 잘못하거나 죄송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디를 갈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 꼭 연락을 드려야 한다. 우리는 '사소한 일까지 다 어떻게 알려드리지?'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매우 걱정을 하신다.

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공부이다. 물론 공부 외에 또 다른 재능이 있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부모님께서는 최대한 우리의 결정과 재능을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

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세대차이',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다. 부모님과 나는 정말 큰 세대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부모님께서도 어렸을 때 우리 같은 과정을 거치셨고, 부모님 역시 어릴 적 자신의 부모님께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보다 훨씬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모든 과정을 우리보다 훨씬 빨리 거치신 분들이다. 우리는 부모님의 잔소리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모두 고려의분하고 지겨운 것으로만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며 우리는 그 것들을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불어 매우 다른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님까지 굉장히 슬퍼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역시 건강해서 학교도 다니고 뛰놀기도 하는 자신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께서도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약간 아프기만 해도 매우 걱정하시고 속상해 하신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을 하면 안 되고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

이렇듯 생활 속에 시소하고 작은 일들이 모두 요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큰 요도가 되고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다. 어섯의 웃어른께서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웃어른의 짐을 물어드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웃어른들께 자리를 영보하는 것도

그러한 예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부모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나도 내 주위의 친구들도 한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될 것이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요도란 것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황폐화 될 것이다. 실제로 요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고 비난을 한다. 우리사회에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심하게는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 등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요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까 과거에 비해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가족끼리 대화 할 시간도 서로 마주보고 있을 시간조차 없어졌다. 그러면서 자연히 가족들과 멀어지게 되고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다. 그러한 가족에서는 요도, 화목이란 것이 볼 수 없다. 서로를 아끼 주고 이해해주는 가정 속에서 자란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요도와 화목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요'를 가장 중요시 하고 아꼈던 데는 모두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풍습에서 조상께 예를 올리는 제사라는 풍습이 생겨났고, 우리는 제사를 통해 또 한번 요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사를 지낼 때마다 나는 불행 불만을 많이 했었다. '이런 거 힘들게 뭐 하러 하...' 하고 말이다. 하지만 정성스레 정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다. 전쟁 때 복에 두고 온 부모님을 생각하시며 제사를 모시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할아버지에게 제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용대' 하고 세상에 태어나 될 때까지 노닐어 될 때까지 우리는 요도를 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부모와 자식간의 아름다운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호도는 어느 나라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시 여겨져 왔다. 서양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을 보통으로 여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추석, 설 등의 명절 때 처럼 가족들이 모두 뭉기종기 모이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서양 사람들은 부모를 만나러 가는 일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다. 어릴듯 가족의 화합, 평생 해야 하는 부모님에 대한 호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이며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미풍명속 중 하나이다. 우리는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해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효'의 미덕을 전해야 할 일이어겠다. ●

효 이야기를 읽고 나서..

청소년부 중앙
세일어고 3학년
손 은 경

지금으로부터 약 17개월 전쯤..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내가 다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꿈 속에서 겪고 싶은 악몽에 시달리며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현실과 꿈의 판단조차 되지 않았고, 또 판단하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냥 꿈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가족 모두 너무 갑작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실 할아버지의 모습을 믿기 힘들었고, 특히 생전에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컸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슬픔에 찬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그로 인해 특히 힘들어하시던 아버지의 속 처처였던 어깨를 보며, 할아버지께 더 잘해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자책하시던 모습을 보며 나는 효도라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연 효도란 무엇일까? 단지 내가 부모님에게 느끼는 감사함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효도일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돈을 드리고, 예쁜 옷을 사 드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단지 효도의 근본적인 모습들일까?

나는 가치 판단에 혼란을 느끼고, "효 이야기" 라는 책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책은 효에 대한 옛날 문헌이나 전래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처음엔 이런 동화 같은 것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

물과, 이는 의문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에선 여러 면모의 요와 형식과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내 그동안의 삶과 모습과 드로에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도 나름대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 착한 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것은 나 나름대로의 자부심이자 자만이었다.

이 책의 여러 주인공들의 삶과 들은 나와는 정말 다른 모습처럼 보였다. 마치 내가 다른 나라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겐 없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치와 정신 그리고 공경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날 당혹하게 하기도 했고, 정말 요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기도 했다.

난 내가 효도라고 하는 행동들을 잘 생각해 보았다. 엄마의 집 안일을 도와서 조금이나마 쉬게 해 드리고, 또 재봉과 예교도 부리면서 행복하게 해 드리고..

마치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누군가가 칭찬하는 요의 모습이었다. 난 이 모든 행동들이 "요" 라는 단 한 글자에 해당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행동들이 내어걸려 마음속 끝부터 우려나와서 열면 행동이 아니라 잠시 부모님께 칭찬을 받아보려고, 또는 물질적인 무언가를 바라고 행동했었다는, 그런 걸보기에만 효였면 내 의미 없었던 행동들을 느끼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항상 부모님께 받고만 있는 입장에서 무언가를 또 바라고 그것을 위해 진실을 위장한 호영을 했다는 내 모습들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 언제나 풍만한 사랑과 넓은 아량으로 이 못난 딸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부모님께 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요의 의미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

눈치를 달게 되었다.

비록 살아내지 못해서 살아계실 때에는 제대로 실천조차 하지 못한 요도였지만..

어직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정말 그동안 못 다 했던 진정한 요도를 해 드리고 싶다.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나라 나의 사랑을 부모님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 책을 통해 요도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때문에..

내 평생 지금 이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겠다. ★

보 보

이동부 최우수상
고촌초등 4학년
김 열 식

는 할머니, . 그래서 매일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 댁에 들어가 놀다가 오기도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기도 한다. . 두 손을 꼭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해 드리고 나온다. 저도 남자가 뽀뽀를 해 드렸더니 주름진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나무나 거뻐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일 뽀뽀를 해 드린다.

지금까지 나는 부모님 곁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올해부터 할머니 댁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부모님 사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오시면 나와 내 동생에게 용돈을 주시곤 하셨다. 그래서 나와 내 동생은 돈 주시는 것만 좋아해서 오시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고는 돈만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게임도 하고 군것질을 하고 돌아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대 대우로 돌아와서 계시지 않았다.

어느 해 오는 날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다. .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 우선도 없어 베풀 다 먹고 우리 집에 오신 것이다. 집에서부터 오셨다면 우선이 입안을 헹개 우리 집 근처에서 말을 해시고 돌아가실 때 우선이 있으셔서 우리 집으로 오신 것이다.

“... 금방 오는 것
밖.” “... 그때 나는 수절으로 말
머니를 닦아 드렸다. ... 그럴
때니 할라게 오오시여” “... 하시며 내 일말여를
두드려 주셨다. ... 연세가 많으셔서

주름이 푸근푸근한데도, 할라게 일을 하시며 우리들에게 용돈도
주시곤 하시던 것이다. 난 여태 그것도 모르고 오직 돈 주시는
것만 좋아했었다. ... 할라세지가 오셨다고 해서 여겨들 주
물러드린다면가 할라세주들 세드리기는커녕. ... 나오라
짜라! ... 나도 여태
스

호도라는 것은 큰일을 해서 부유님이나 할라니 할라세지들 도
오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리고 나오는 상경어 있는 일로만 생각했었다. ... 품배
배에 적은 할라니를 닦아드리면서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

은 일부의 실정’ — ‘작은 일을 해서 거하게 해 드리는
것보다 적은 일부의 실정해서 어른들을 권경하고 거하게 해 드
리는 것이 바로 호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분들의 주름살이 저
나라도 잘 생기시겠지. 그들안은 호보다는 분호라는 것이 더 울
에 배어 있었다.

부유님께 당대고 하고 병행도 좀 했었다.

척은 좋아해서 척을 많이 일으키면서도, 척에서 마이들어 무도게
하면 ... 그것을 나와 안경시까지
몰랐다. 이제 오농부터라도 작은 경부의 실정을 하기로 마음먹었
다. 할라니 할라세지께 분호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분동
을 거하게 세드리고 싶었다. ... 학교에서 있었던
말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드리어야겠다. 그 동안 별거만 했었는데

... 할라세지 제네이성까지 정성껏 만두

어서 그 문둥의 가슴에 닿아 드릴 것이다. 귀요미성에 내 사랑을
들려 넣어라...

결어니,

.

(★

심 부 름

이장부 글상
지속조동 4학년
김 호 정

나는 호우는 거리가 정말 멀었다. 호우 하거보다는 오려라 부
모님께께 짜증날 내고 소리 지르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항상 최
스러운 태운이 가득했다.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호는 무엇
이 일우려? 나는 조그래만 일여라도 부모님이 기뻐하셨다면 그
경도 호우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조그래하지만 기쁨을
주는 호에는 무엇이 일우지 조금 생각해볼래 한다. 오줌은 실업
자가 칭칭 놓여나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
를 열심히 해서 실업난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뻥뻥 실업난을 걱정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칭찬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셔도 기뻐하실 것이다. 나는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
던 대부분 ' . 그리고 바로 심부름을 하거 보다
는 내 일을 다 하고서 심부름을 했다.

하우는 여섯 일여 일었다. 할부님들 준거하는 나는 그날도 역
시 할부님들 하고 일는데 일대께서 " . 용포수 준 사오너
가." . 몇 심 부여
지나자 다시 나를 부르는 일대여 옥소리가 들려왔다. 맞는 수 있
여 울을 일으켜 들을 받았다. 그리고는 거기를 가면서도 계속 후
덜후덜 거렸다. — 김나나 시켜지
꼭 왜 나만 시켜는 거야...

마지막에 사은 용포수를 견내자, 일대는 여대여 종종 흐르는

말씀을 온대로 부어 담으라.”

“하시라

병적병적 마셨다.

그 곳은 보통의 집보다도 훨씬 덥고 후덥지근했다. 그날도 후에
피운데 영성이 달라서다가 목이 말라서 내가 심부름을 시킬 것
인데. . . 영마의 말뚝을 보며 나는 그

동일의 일등을 반성했다.

우리 영마는 매일 공농사를 지으시느라 다른 영마들처럼 말을
부리지 않는다. 그리고 굶기 때 다른 영마들이 예뻐게 자리
고 오시는 것을 보면 나는 화가 났었다. 그렇다고 우리 영마가
지저분하게 하고 오신 것도 아니다. 우리 영마는 깨끗을 하지 않
요한다. . . 우리 영마의

손을 거치면 선명할 뻐나기 10 20 100 . . .

그런 오
수손을 거칠 영마인데. . . 정말일 농사일 어느 뻐나
스름함이 없어 영성이 일만 뻐시는 우리 영마를 내가 너무 스름
히 뻐었다. . .

그래서 앞으로는 종개 심부름을 한가로 다음뻐었다. 그것도 모
여 말뚝과 생각했다. 배통일이 대등고 써줄을 부려도 부어넘어
우리를 사귀어시는 다음은 뻐함이 있다. 그런 고대운 다음을 잊
지 않고 앞으로 남은 많은 시간들을 뻐하여 보나지 뻐야뻐겠다.

심부름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말에 앞으로 영마의 일도
뻐고 싶다. . . 영마의 오수손이

말뚝에 내는 선명함을 나도 말뚝에 뻐고 싶다. 정말처럼 적다뻐
선명함을 만들어 영마께 선물해 도려야지. . . ★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이광부 존상
구산초등 4학년
조 아 열

나는 여덟 ' ' ,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지 않아 걱정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날 언더네 보고 다음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더네
에 써야 있는 글동무 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을 흘렸다. 그리고
보니 ' ' , 부모님의 나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 못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는 그저 부모님이니깐 나에게
잘 해주고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게 당연하
다고 생각했었다. 6 :년이 되어서 부모님 용애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여쭙
다가 심부름 하나 하면서 대단한 부푼 겨우 들어주는 것처럼 생
세내며 돌아오려면 나았다. 호도관 생각은 쉬워도 실천은 정말
어려운 일 같았다. 사춘기라는 핑계로 짜증부리고 때론 내
나무 찢으려웠다. 우리 집 라우는 내 짜증으로 시작되고 짜증으
로 매일 끝어 난다. 7 50 :여
있다. 물론 다 내 잘못이
다. 하지만 난 지적어가며 야칠 사랑이니깐 조금만 먹고 거라고
말씀하시는 일대야 사랑은 후거침 채 온갖 짜증은 다 부러여 먹
고조 말한다. 며칠부터 난 일대야 기분을 말지도도 오후에 집에
에서 일대야 꼭오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대중 찾는다. 눈
은 피내 라우 종이 일대시키고 어쩔 수 없는 취시에 술에 맞춰 성
태가 되어 오신 아빠께 술냄새 난다고 그계중 적 돌려 내 방으

로 말하는 날 최대 대회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 모든 행동
 등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한다. 오도들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제해서 오도들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정말
 불효자다. 그가 저지른 불효들을 하나씩 다 할라하면 끝도 없을
 것이다.

정해.

동해.

성해.

거주 세 가지 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많은 그칠 것 중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다. 모든 사람들은 돈이나 겉치레 물건이
 오도일 줄 알다. 하지만 난 부모님을 잘 따르고 속 써지지 않는
 게 오도라고 생각한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후회하는 내가 바보
 같다. 한 번 백만 유은 할 수는 있어도 그 자국은 남여 있다는 말
 을 들은 적이 있다. 왠지 나 여자가 같아 가슴 한 구석이 찢린
 다. 또한 어떻게 지켜지도 못할 거절한 계획과 편지와 깨내어선
 한자로 어버어날 하루 기쁜 종겨 해 두리만 오도들 다 한 것
 과 생각할거 때문이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부모
 님께 날기만한 사랑 및 배로 할아 드릴게요.’ ◆

엄마가 보낸 선물

이광부 동상
연호초등 2학년
이 명 보

대청 전에 엄마가 예쁜 포장지에 선물을 싸고 계셨다. 나는 우
척 궁금해서 엄마께 물어 보았다.

엄마가 포장지를 다 벗길 때 나는 얼른 스커치 테이블로 갔어
서 포장지에 붙었다.

엄마는 별그레 웃으셨다. 내가 거들어 주니까 좋아신 것 같았
다.

나는 어버이님이 오니까 엄마는 친절해니까 더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았다. 엄마는 그 선물을 들고 용영 유태극장으로 가서 부치고
오셨다.

나는 어버이님이 돌아오면 7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책 가져 도와드리려고 했다.

어버이님만 거북게 해드리는 것보다 대청간 해 보는 것이 좋
다고 생각했다.

직장에 다니시니까 집에 오시면 피곤하신 것 같다. 엄마는 여
번에도 내 얼굴을 쳐다보며 웃으셨다. 다음날은 내가 보통 때도
라는 것이지만 더 걱정했 했다. 엄마가 저녁밥을 차리실 때 수저
를 놓았다.

..... 동생 수저 앞에

놓았다.

그 다음날은 아빠 다리를 추방려 되겠다. 아빠도 거동이 중요
한 것 같아서 내 기분도 좋았다.

이브이닝에는 아빠 일어나서 편지통 쓰고 글도 만들어 달아드리
겠다. 그때되면 마음도 쓰
겠다.

성물은 꼭 움직여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마음이 중요
한 것 같다.

부우님도 그런 것 다 좋아하실 것 같다. 성물은 나중에 내거
든 생어서 해 드리겠다.

제 마음 움직이면 움직여요. ●

진정한 효도

이광부 동상
역촌초등 5학년
박 세 원

역대 없지 않으면 5 8 . 모든 사정들이 여
과가 되면 더욱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어머니님이 되면 부모님께 감사편지를 쓰고 정성껏 공을 준비해
서 가슴에 담아 드리고 성운도 준비해서 드린다. 평소엔 부모님
께 효도하면서 어머니님에 대해 잘해드리고 싶지만 정말 좋게지만 평
소에는 부모님께 봉양하면서 어머니님에 잘해드리고 싶은 사람들도
흔들 있다.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께 어떻게 해 드리는지를 공
이 생각해 보았다. 나도 역시 어머니님 또는 부모님 생신 때에만
잘 해 드려려고 열심일 것 같다. 평소에는 부모님께 자주 짜증을
내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한 적이 많아 있다. 이런 행위는 나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진다.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리는 것
이 진정한 효도일까? 어머니님에 특별히 잘 해 드리는 것이
효도는 아닐 것이다. 평소에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려서
부터 역대가 나중 남을 때 정말 힘들게 낳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1992 1 93 12
달 21 새벽에 병환으로 옮겨져 수술을 해서 힘들게 나중 남으
셨다고 한다. 제정신보다 한 달 빨리 태어나서 결혼 후과 친구들
보다 학교 가고 용무계도 적게 나가서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했
다고 한다. 어떻게 어떻게 나중 낳아주시고 경여주시어서 너무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역을 도와드리고

으로도 일하는 거야."

"ID님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는지?"

어려 거지들

생각했는데,

어머니 심부름

정하기.

책망에는 없고,

용기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

을 도와드릴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책망에는 공부할 영성이

없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시간이 많은 주말이나 휴일에

는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2에게는 부모님

에게도 고도해야 할 분이 많은 다 계시다. 3. 2는 두 분 모두

적잖아 다니실 때 어질 때부터 나를 사적으로 격려주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부모님보다도 할머니의 말이 제일 적어 다 읽어

서 할머니께 다 적혀 드리고 싶다. 요즘 할머니는 물어 편찮으시

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목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목이 많이

아프셔서 항상 기프트를 갖고 다니시는 경우 보면 눈에는 눈물

이 글썽이고 마음이 아프다. 책망에서 너무 늦게 공부 책망에도

차주 경우가 있어서 너무 죄송하다. 우리 할머니는 내가 공부를

정해서 공부할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

고고 매일 기도하셨다. 이런 할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영성적 공부해서 공부할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2가 책에 책망속을 걷는데 기념품이 있어서 들어갔다

나 여러 가지 선물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일과, 2는 성격이 나

서 선물을 했다.

2에게는 저울질 보석반

지를 할머니께는 만수무강을 드렸더니 너무나도 감사하시고 기

뻐하셨다.

2가 책상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 같다.

오늘 뉴스나 신문은 보면 자신이 부모를 때리고 죽이는 일과

지 않다. 이런 내용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자식들이 행동이 정

여해가 되지 않는다. 할수록은 여령 사경등이 경대로 익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농스나 신문이 부모님께 호도하여 칭찬받는 사경등이 소식이 많이 싶겠으면 좋겠다. 자기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운이 어른들도 공경하고 특히 자식이 있어서 으뜸개 곧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등을 도와드리는 모습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

고마우신 엄마 아빠

이동부 동상
연신초등 3학년
변 하 열

엄마 아빠
연니동 꾸우는 것도
힘드시죠?

나를 낳아 데 고생하시는
엄마 아빠
연니동은 10 12 일대
날 3!

엄마 아빠께서는
내가 엄마 아빠께 과분어도
고맙고 써주세요

그래도 귀엽다고
희내시지 않고 웃음지어 주신다.
그러다보니
나, 3 1대는
다 커가고

엄마 아빠께서는 웃음용
일요선 중 덕연지만
언제나 조금씩 웃어주신다. ●

제3회 호곡문학 공모전 · 최 책임장 대표

입상작모음집

발행일 : 2004년 12월 31일

발행인 : 엄 무 성

발행처 : 사 회 복 지 법 인 인 덕 원

은 평 구 립 도 서 관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산59-32번지

☎ (02) 385 - 1673 - 4

홈페이지 www.eunpyeonglib.seoul.kr
